



Hana Market Weekly

달러/원·엔·유로환율·금리·주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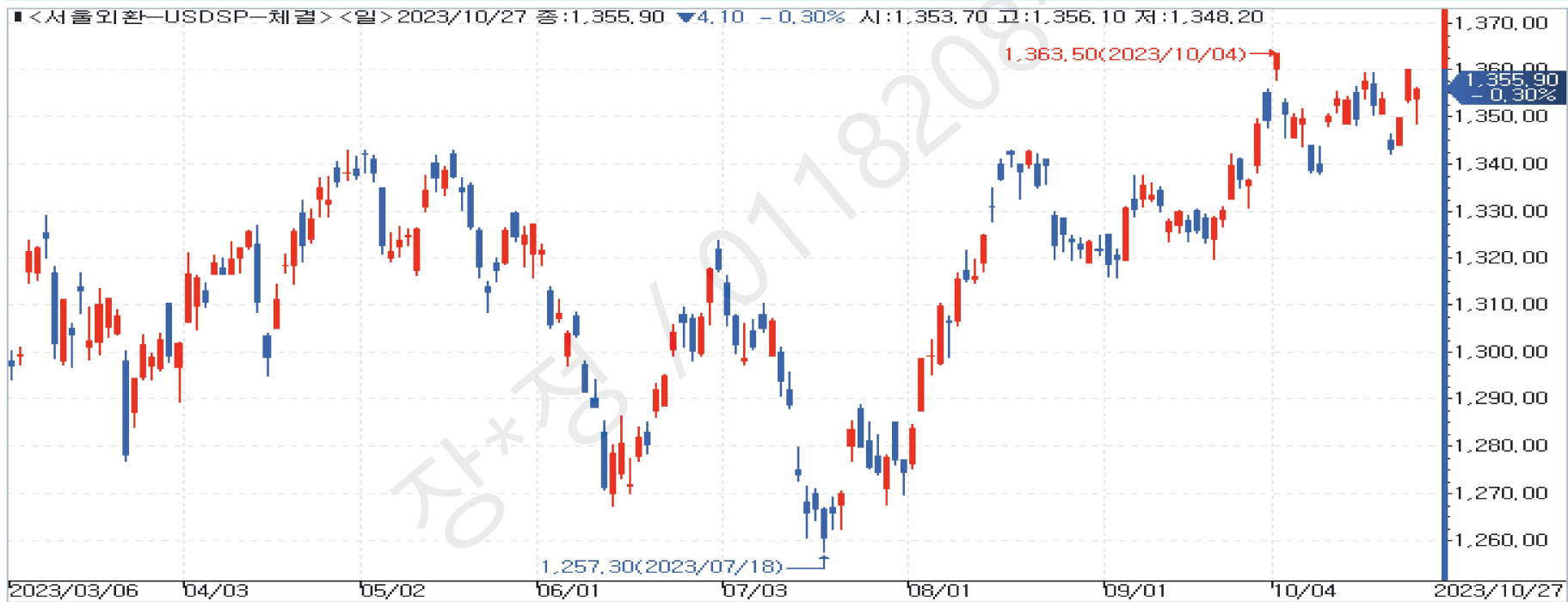
자금시장영업부

2023. 10. 30

본 자료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이며, 하나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또한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로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,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.



주간 달러/원 동향(10/23~10/27) 및 전망



주간 달러/원 동향

- 주초, 파월 연준 의장 발언 이후 미 국채금리 상승세 지속되는 측면 반영하며 환율 상승 출발. 이어 빌 애크먼의 채권 매도 포지션 조정 소식에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 급락하는 등 달러 강세 분위기 완화되며 하락 전환
- 중반 들어, 미 PMI 호조 속 주요국 대비 견조한 미 경제상황 부각됨에 따른 달러 강세와 중국 비구이위안 디폴트 선언 소식 후 위안화 약세 영향 속 상승
- 후반, 조선업체 수주 소식에도 중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위험회피 심리와 국내 증시 부진 등에 1,360.0원까지 고점을 높임. 이어, 미 GDP 호조에도 선반영된 측면과 미 국채금리 하락세에 따른 달러 강세 제한 등으로 하락 전환 후 1,350원대 중반에서 마감

달러/원 전망

- 중동발 불안 고조 영향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등이 달러/원 환율의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
- 반면, 미국 3분기 GDP가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향후 미국 경제의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소폭 탄력 받는 과정은 환율 상승 제한 요인으로 판단
- 차주 예정된 FOMC에 대해 경계감이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 환율은 1,350원 전후 흐름의 등락을 보일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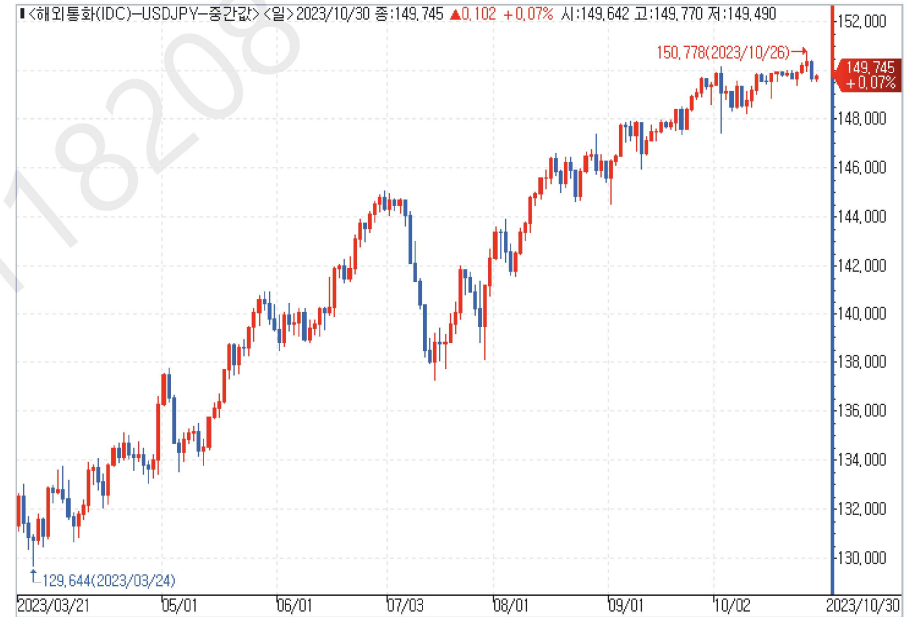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,350.5	1,360.0	1,341.8	1,355.9	+5.4

예상거래범위

1,340원 ~ 1,360원



엔·유로화 동향 (10/23~10/27)



유로화 동향

- 주초, S&P의 그리스 신용등급 상향조정 소식에 유로화는 큰 폭의 강세 보이며 출발. 이어, 유로존 10월 PMI 부진과 독일 소비심리 악화 등에 유로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확산됨에 따라 약세 전환
- 중반, 라가르드 ECB 총재가 물가목표 달성 의지 강조했으나 경기 부진 지속되며 기준금리 동결 예상되는 측면이 유로 약세를 지속적으로 견인
- 후반, ECB의 금리동결 결정과 유럽 대비 견조한 미 경제와의 차이 부각 등에 유로 약세 흐름 심화. 이어 주 후반, 유로존 GDP 전망치 하향 조정 등으로 약세 압력 이어지는 가운데, 미 9월 PCE가 예상치에 부합하며 달러 강세 제한된 영향으로 보합 마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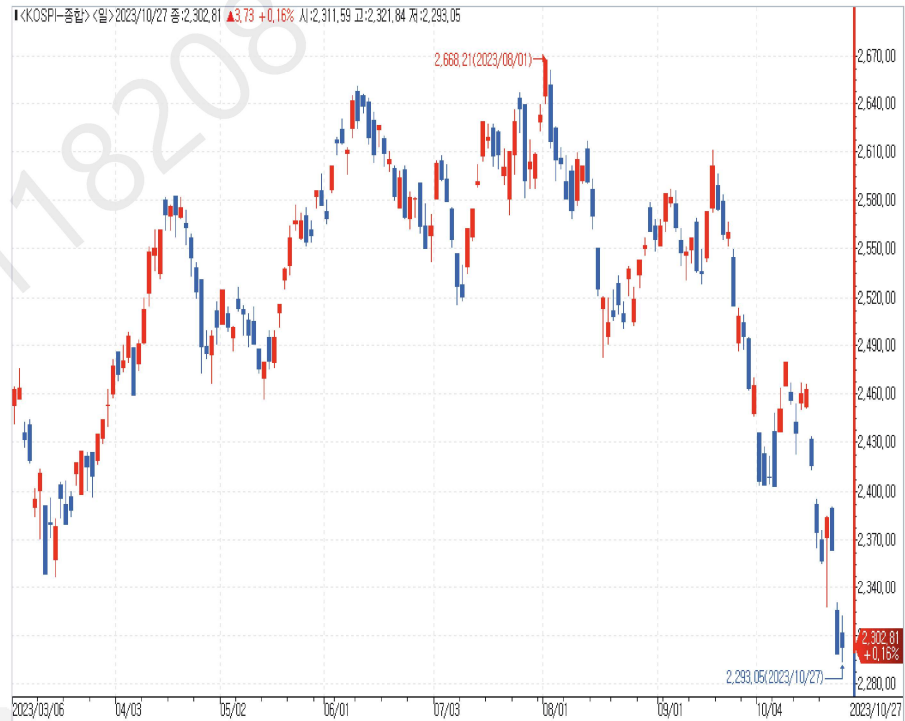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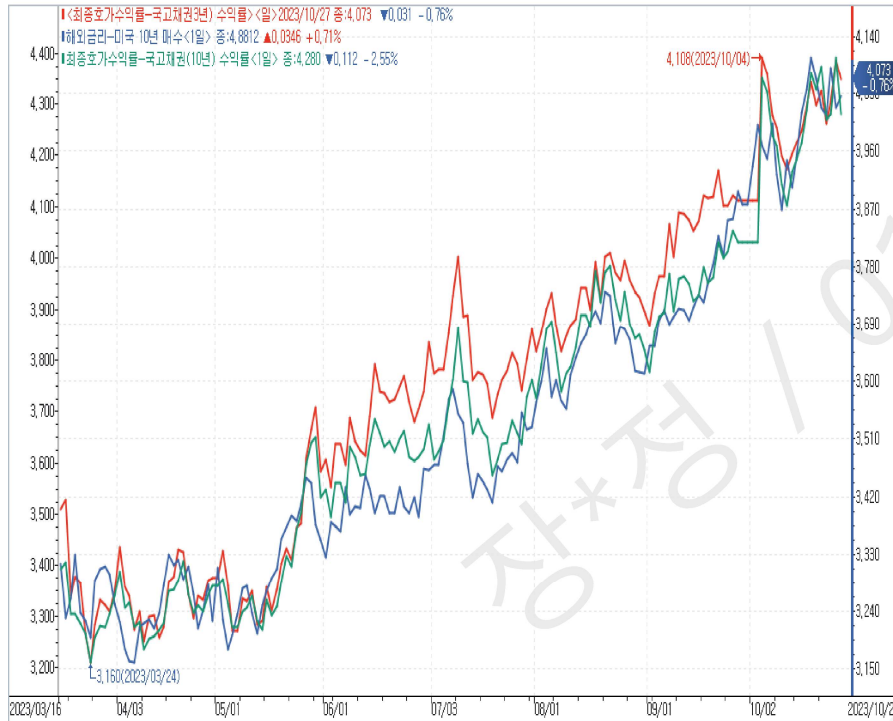
엔화 동향

- 주초, 일본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과 일본은행의 수익률곡선제어(YCC)정책 수정 기대감 속 엔화 소폭 강세 출발. 이어 미 실물경제 지표 호조에 따른 달러 강세 반영하며 약세 전환 후 심리적 저항선인 달러당 150엔에 근접
- 중반, 미 장기채 금리 상승세 지속에 따른 엔캐리 수요와 일본 수입기업 실수요 매도 영향 등에 150엔 돌파하며 약세 심화
- 후반 들어, 일본 외환당국 관계자의 구두개입성 발언에도 미 3분기 GDP 호조에 달러 강세 흐름 이어진 영향으로 달러/엔 환율은 연중 최고치 재차 경신. 이어 주 후반, 시장 컨센서스 상회한 10월 도쿄 지역 CPI와 그에 따른 BOJ 통화정책 수정 기대감 속 강세 전환 후 마감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.0594	1.0694	1.0523	1.0563	-0.0031

주간시가	주간고가	주간저가	주간종가	주간등락
149.8	150.8	149.3	149.6	-0.2

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(10/23~10/27)



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

- 주초, 미 국채 금리 상승에 연동된 흐름 속에 상승 출발. 이어 미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되돌림이 나타난 상황에서 중동발 이슈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하락 전환
- 중반 들어, 미 국채 금리 등락에 연동된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뚜렷한 방향성 부재 속에 혼조 흐름 시현
- 후반 들어, 미 3분기 GDP 호조 전망에 따른 장기 구간 급등세 시현 후, 주 후반, 3분기 GDP 속보치 4.9%로 월가 예상을 상회한 결과를 확인 후 미 국채 금리 반락에 연동. 여기에 차일 국고채 발행 계획 축소 등의 영향도 국고채 시장 강세를 견인하며 하락 마감

주간 증시 동향

- 주초, 이스라엘-하마스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이어진 가운데 미 금리 급등 압박 등에 의한 수급 불안정 등으로 하락 출발. 이어 미국채 10년 금리가 4.8%까지 하락 소식 등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속 저마 매수 유입 등으로 상승 전환 시현
- 중반 들어, 지정학적 불안 요인 지속한 가운데 2차 전지 업종들의 큰 폭 하락 등에 영향으로 하락 재전환
- 후반 들어, 미 3분기 GDP 발표 경계감 속에 미 국채 금리 급등 영향 반영하는 가운데, 미 하원의장 선출 관련 정치적 불확실성 및 중동 전쟁 확대 우려 등으로 2,300선 하회. 주 후반, 미 9월 PCE 가격 지표 발표에 대한 관망 속에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 등으로 소폭 반등하며 마감